

국어교육에서 어휘교육의 문제와 대응 방안 모색

- 미당 서정주의 『화사집』을 중심으로 -

노홍주(동국대) · 전한성(한세대)

〈목 차〉

- | | |
|--------------------|-------------------|
| 1. 논의를 시작하며 | 4. 어휘교육의 내용 구성 방향 |
| 2. 국어교육에서 어휘교육의 문제 | 5. 마치며 |
| 3. 어휘교육의 방안 연구 현황 | |

1. 논의를 시작하며

이 연구의 목적은 어휘교육의 연구 현황과 현재 국어교육에서 수행되고 있는 어휘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본 뒤 어휘교육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어휘는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로서, 언어를 이루는 구심점이자 그 자체로 소중한 문화유산¹⁾의 지위를 갖는다. 어휘를 안다는 것은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물을 인식하거나 추상적인 사고 과정을 내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 개인이 지닌 사고가 언어(어휘)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런 까닭에 국어과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1) 임지룡(2010: 260)은 Miller(1991)의 논의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어휘는 언어를 구성하는 어떤 요소보다도 언어 공동체의 삶과 문화에 한층 더 민감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곧 어떤 단어를 아는 사람은 그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과 관념을 공유하게 되며, 공유된 어휘는 구성원들을 결속하고 공유된 문화를 창조케 하는 접착제 역할을 한다. 그런 뜻에서 국어 어휘는 국어를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소중한 문화유산의 지위를 갖는다.’

‘어휘’의 사용이 국어교육의 내용요소로 설정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임지룡, 2010: 260).

실제로 2011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²⁾에 ‘어휘교육의 중요성’을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민현식(2011)은 학생들의 국어 능력 부진은 문법 지식의 부족과 이에 따른 어휘력(정확한 발음과 표기, 풍부한 어휘 능력)·문장력(간결하고 정확한 문장 쓰기, 논리적 문단 구성력, 비문 예방 및 퇴고 능력)의 부진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며, ‘어휘교육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³⁾ 그러나 여전히 국어과에서 어휘교육은 ‘문법 영역에서 어휘와 관련된 국어학적 지식의 이해와 적용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전은주, 2012: 181), ‘문법교육의 여러 분야 가운데 하나’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이관규, 2011: 128). 교육과정 문서만 살펴봐도 ‘어휘교육의 강화’에 관한 진술은 모두 문법 영역의 하위 내용과 관련되어 기술되고 있다. 그런데 ‘어휘 능력’이란 신명선(2004), 구분관(2011-1)에서 역설하고 있는 것처럼, ‘어휘에 대한 양적·질적 지식뿐 아니라, 표현과 이해 양 측면의 어휘 활용 능력, 어휘에 대한 올바른 태도 등을 모두 포괄하는 능력’⁴⁾이다. 따라서 평소에 문법 영역뿐 아니라, 다른 영역의 교수·학습 과정에서도 어휘, 문장 능력, 활동 등을 강화하여 문법과 다른 영역의 통합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문법은 지식 교과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각 지식의 위계가 분명한 영역(민현식, 2011: 134)이다. 한편 문학은 문법 영역과 달리 수용자가 텍스트의 빈 곳을 상상력을 통해 채워나가며 이야기의 내용을 인지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해석과 상상력의 작용을 통해 주인공과 거리두기를 하거나 공감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삶에 대한 깨달음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볼 때 문학은 정의적 텍스트를 대표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올바른 어휘

2) 정식 명칭은 ‘2011년 8월 9일에 고시된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따른 국어과 교육과정’이지만, 논의의 편의상 ‘2011 국어과 교육과정’이라 지칭한다.

3) 민현식(2011)은 최근 연구 동향과 교육적 요구 가운데 하나로 어휘교육의 강화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2011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시안 개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011 참고.

4) 구분관(2011-1)에서는 어휘교육과 관련해서 특히 ‘태도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의 어휘교육이 언어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정확한 언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인지 중심 교육에만 초점을 둔 것에 대한 반성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

교육은 지식으로 사전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법 영역의 범주를 넘어 어휘의 작용방식을 드러나게 하는 발화자의 의도나 심리, 나아가 발화 상황 및 사회·문화적 맥락까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어휘 능력의 신장이 문법 영역을 넘어 문학 영역으로의 확장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문학 텍스트를 바탕으로 올바른 어휘교육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⁵⁾ 특히 ‘모국어의 생기발랄한 장터를 방불케(연은순, 2001: 63)’하는 작품들을 다수 창작하여, 문학의 전형성을 보여 주면서 동시에 우리 민족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미당 서정주의 텍스트를 활용하고자 한다. 그가 남긴 15권의 시집 가운데 초기 시집인 『화사집』을 통해 어휘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유는, 관능적인 시어로 인간의 생의 의지를 보여주는 『화사집』의 시편들이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 모두를 충족하는, 살아 있는 어휘교육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 국어교육에서 어휘교육의 문제

국어교육에서 어휘교육의 문제는 문법과 문학의 통합교육⁶⁾에 관한 방법론 차원에서 거론되는 경향이 있다. 어휘교육을 위해 문법 영역과 문학 영역을 통합할 때, 문법은 기본적인 의미 해석에서 시와 일상 언어에 작용하는 문법

-
- 5) 국어과 교육에서 문법 영역의 본질적 역할은 ‘①정확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기초적·규범적 지식을 제공하는 영역으로서의 역할, ②다양한 소통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언어 자원을 제공하는 영역으로서의 역할, ③자신의 언어를 대상화할 수 있는 주체적 언어 사용자를 길러 내기 위한 영역으로서의 역할’이다. 이들 역할은 각각 ‘①실체 중심의 문학관, ②속성 중심의 문학관, ③활동 중심의 문학관’과 유사한 속성을 지닌다. ‘실체 중심의 문학관’은 ‘현실적·구체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을 통해 문학에 접근하는 관점’이며, ‘속성 중심의 문학관’은 ‘문학을 이루는 속성에 주목하여 문학의 총체를 설명하고 문학의 본질을 이해하게 하는 관점’이다. ‘활동 중심의 문학관’은 ‘문학을 인간의 활동을 통해 설명하는 관점으로, 문학이 어떤 활동을 통해 성취되며 그것이 인간에게 어떤 의의를 지니는가를 살핍으로써 문학의 특성을 설명하는 관점’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김대행 외(2003) 참고.
- 6) 본고에서 ‘통합교육’은 차윤경 외(2014)의 입장을 견지한다. 차윤경 외(2014: 25)는 ‘교과통합이 반드시 복수의 교과 간 통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단일 교과 내에서도 통합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학습자가 교과 내 다양한 주제나 개념 혹은 맥락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연결성을 확인하고 발견하도록 돕는 교육적 과정은 교과 내에서 학습의 깊이를 유의미한 방식으로 심화시킴으로써 향후 타 교과와의 연결성에 대한 인식론적 폭 역시 확장할 수 있다.

원리의 유사성을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고, 문학은 밀도 있는 감상을 가능하게 하며 그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그동안 문법과 문학을 별개의 영역으로 인식해 오던 학계의 관행으로 인해 두 영역의 통합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

최병혜(2012: 50-51)은 국어교육에서 시의 언어적 특징은 주로 시어가 지닌 함축적 용법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아 시와 문법의 본질적인 관련성을 구체적인 요소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국어교육에서 어휘교육의 문제는 어휘를 문법 차원에서만 바라보고 인지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에 함몰되는 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다시 생각해보면,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어휘교육의 내용요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동시에 교육과정의 비체계성은 교과서의 부실한 학습활동으로 이어져 어휘교육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소영·이병운(2013)도 ‘모든 교사들이 어휘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체계적인 연구 없이 무작정 자료를 읽고 모르는 단어를 찾아 그 뜻을 암기하게 하거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나오는 단어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내세우는 어휘학습을 하는 등의 수업을 수십 년째 반복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어휘교육의 비체계성을 지적한다.⁷⁾ 어휘교육과 관련된 요소가 비체계적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고등학생 수준이면 상당한 어휘력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판단으로 인해 학년이 높아질수록 어휘교육 관련 내용요소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교육과정 차원’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1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 어휘교육의 비체계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소영·이병운(2013), 신명선(2011) 참고.

〈표 1〉 2011 개정 교육과정 ‘문법’ 교육 내용의 위계화

낱말 (단어) 어휘 선택 교육과정	1-2학년군	- 고유어 익히기 - 낱말의 의미 관계
	3-4학년군	- 표준어와 방언 - 국어의 낱말 확장 방법 - 국어사전(품사 분류, 동음이의어와 다의어)
	5-6학년군	-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 낱말의 의미(다의어, 동음이의어) - 관용 표현
	중1-3학년군	- 어휘의 유형과 의미 관계 - 단어의 짜임 - 품사의 개념과 특성
	선택 교육과정	- 어휘의 체계와 양상 이해(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지역 방언, 사회 방언) - 품사의 개념과 이해(국어사전 활용) - 단어의 형성 과정 -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 - 단어의 의미 관계

위에 제시된 <표 1>은 민현식(2011: 135)가 제시한 ‘공통 교육과정 문법 교육 내용의 위계화’에 ‘선택 교육과정 문법 교육 내용’을 더해 만든 것이다. 2011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학년군에 따라 교육과정을 배열함으로써 위계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때 위계화의 원리로 삼은 두 가지 요인은 ‘학문 논리’⁸⁾와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이다. 그런데 위에서 알 수 있듯이, 학문 논리 즉 국어학의 논리에 따라 어휘의 사전적 지식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를 적극적으로 고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국어교육 연구에서 위계화와 관련된 논의가 숙성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⁹⁾

2011 국어과 교육과정 문학 영역에서도 어휘 능력을 신장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 성취 기준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아래 <표 2>에서도 알 수 있듯이,

- 8) 최미숙 외(2012: 297)에 따르면, ‘학문 논리’란 문법이 지식 교과의 성격이 강하고 각 지식의 위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 항목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론적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논리이다.
- 9) 어휘교육의 위계화와 관련된 논의로는 장경희·전은진(2008), 임유중·이필영(2004-), 임유중·이필영(2004-)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논의는 초·중·고 학습자와 성인이 사용하는 어휘의 양상을 보여줄 뿐 어휘교육 위계화의 기반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는 맹점이 있다.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선택 교육과정 문학 영역에는 그 과정의 학습자들이 이미 상당한 수준의 어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는 듯한 진술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어휘 능력과 관련된 ‘문학’ 영역 내용 성취 기준

<p>[국어Ⅰ] 문학 영역 내용 성취 기준</p> <p>(14) 문학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개성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한다. (15)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로 형상화한 예술이며 사회적 소통 활동임을 이해한다.</p> <p>[국어Ⅱ] 문학 영역 내용 성취 기준</p> <p>(14) 문학이 정서적, 심미적 삶을 고양함을 이해하고 작품을 수용·생산한다.</p> <p>[문학] 영역 내용 성취 기준</p> <p>(1) 섬세한 읽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한다. (2)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짐을 이해하고 감상하며 창작한다. (5)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작품을 재구성하거나 창작한다. (6) 작품을 비판적·창의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발표하여 서로 평가한다.</p>
--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문학 영역에 나타난 어휘 능력과 관련된 내용 성취 기준은 고등학교 학생 수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점들이 발견된다. 국어Ⅱ 내용 성취 기준의 ‘문학이 정서적, 심미적 삶을 고양함을 이해하고 작품을 수용·생산한다.’는 진술을 생각해보자. 어휘교육과 관련하여 문학교육에서 구현할 수 있는 학습활동은 무엇일까. 정서적, 심미적 삶을 고양하기 위해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데 동원되는 어휘는 어떤 어휘이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 어휘교육의 교육 내용 구성과 관련하여 생각해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국어교육에서 어휘교육은 문법 영역에서 지식 차원으로만 제공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비체계성은 교과서 학습활동 구현의 불성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어휘교육은 단어의 사전적 뜻풀이에만 치중되어 있다. 전점이(2007)은 기존의 어휘교육이 인지적 측면에만 경도되어, 새로운 어휘 결핍을 통해 드러나는 ‘말맛’과 다양한 울림을 주는 ‘정서적 어휘’

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그는 어휘교육이 문법교육 차원을 넘어 문학교육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정우(2011)도 그동안 어휘교육이 국어학의 하위 분야인 어휘론의 교육적 가공에 불과했음을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문학교육에서의 어휘교육은 개별 단어의 뜻풀이 또는 배경 설명 정도로 이루어지면서 정작 문학교육에서 작품을 읽고 쓰는 데 필요한 어휘 능력의 신장을 위해서는 어떤 지향을 가지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였다고 말한다.

어휘교육의 위계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문학교육에서 오랫동안 제기된 어휘교육에 대한 고민들이 교과서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반영되었는가 하는 점은 의문으로 남는다.¹⁰⁾ 2011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이 반영된 ‘문학’ 교과서 가운데 ‘해냄에듀’ 출판사의 해당 내용을 살펴본 결과,¹¹⁾ 어휘교육과 관련하여 인지적 측면뿐 아니라 정서적 측면까지 고려한 학습활동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표 3〉 해냄에듀 출판사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어휘 능력 관련 학습 활동

<p>74쪽 유문선 『흔들리는 팬지꽃 아픔』 & 고정희 『우리 동네 구자명 씨』 관련</p> <p>2. (2) 글쓴이는 제 2연의 ‘꼭이 두 행에 걸치게 되어 두 가지 의미를 창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 두 가지 의미를 파악해 보자.</p>
<p>101쪽 윤동주 『아우의 인상화』 관련</p> <p>1. (2) 위의 (1)에서 찾은 시어들(작품에서 화자가 아우의 얼굴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시어)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정서를 말해 보자.</p> <p>4. 이 작품을 참고하여 모방 시를 쓰는 활동을 해 보자.</p> <p>(1) 시의 소재로 삼을 만한 주변 인물 한 사람을 떠올려 본 후, 그 인물의 인상을 다음과 같은 형식(얼굴은 (이)다.)으로 표현해 보자.</p>

10) 물론 교과서가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교육과정상에서 어휘교육의 위상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교과서 학습활동이 제시되기란 어렵다. 그러나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 모두를 포괄해야하는 문학교육에서, 이러한 문제제기가 있어왔는데도 ‘말맛’과 ‘정서적 어휘’를 다루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판단된다.

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3년 8월 30일에 ‘2013년 교과용도서 검정 심사 합격본 평가 결과’를 공지하였다. 고등학교 선택과정 ‘문학’은 ‘지학사, 천재교육, 미래엔, 창비, 좋은책신사고, 천재교과서, 비상교육, 비상교과서, 해냄에듀, 두산동아, 상문연구소’ 총11종의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였다. 이 중 ‘교과기준 평과 결과’ 점수가 90점 이상 100점 이하로 가장 높은 ‘해냄에듀’의 교과서를 살펴보았다.

(3) 위의 (1)-(2)를 바탕으로 이 작품에 대한 모방 시를 써 보자.

230쪽 황진이 「동지스들 지나긴 밤을～」 관련

1. (2) ‘동지스들 지나긴 밤을～’에서 ‘서리서리’와 ‘구뵈구뵈’에 담긴 화자의 심정을 이야기해 보자.

323쪽 의유당 「동명일기」 관련

4. 해가 돋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비유한 표현들을 찾아보자. 그리고 작가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표현들이 지닌 특성을 말해 보자.

350쪽 곽재구 「새벽 편지」 관련

1. (1) 이 작품의 ‘새벽’이 환기하는 분위기를 말해 보자.

4. (1) 화자에게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말해 보자. 그리고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한마디’에 담긴 의미를 고려하여 ‘나’에게 쓰는 ‘새벽 편지’에 담길 내용을 생각해 보자.

(2) 자신이 화자의 입장이 되어 주변 사람에게 편지를 써 보자.

문학 작품을 보다 풍부하게 감상하기 위해서는 특정 단어에 담긴 정서적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단어가 함의하고 있는 무궁무진한 의미는 인지적 측면만을 통해 파악할 수 없다. 단어의 의미를 인지적 차원에서 개념적인 문법 지식으로만 한정지어 이해한다면, 단어의 의미가 갖는 본질적인 성격에 대한 교육을 포기하는 꼴이 된다. 따라서 어휘교육의 교육 내용은 단어의 사실적 지식을 넘어 정서적 의미의 울림까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¹²⁾

한편 2011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독서와 문법’ 교과서 중에 ‘미래엔’ 출판사의 교과서를 살펴본 결과,¹³⁾ 문법 지식의 학습을 위해 문학 작품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 신명선(2011)은 어휘교육이 학습자에게 많은 양의 어휘를 제공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어휘망을 확장시키고 사고 체계를 정련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지적한다. 아울러 단어의 ‘정서적 의미’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어에 대한 앞의 성격을 고려해야 하는데, ‘단어를 안다’는 것은 ‘정도성, 용인성, 객관적 주관성(혹은 주관적 객관성)’과 연관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신명선(2011: 79-82) 참고.

13) 고등학교 선택과정 ‘독서와 문법’은 ‘교학사,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창비, 천재교육’ 총 6종의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였다. 이 중 연구자가 확보할 수 있었던 ‘미래엔’의 교과서만 살펴보았다.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도 확보하여 추후 논의를 보완할 예정이다.

〈표 4〉 문학 작품을 활용한 어휘 능력 신장 관련 학습 내용

66쪽 ‘음운 교체를 통한 음성 상징어의 표현 효과에 대해 알아보기’

내용 성취 기준 (5) 음성, 음운의 세계를 탐구하고 올바르게 발음 생활을 한다.

(가) 기형도 ‘엄마 걱정’ 中 ‘타박타박’

(나) 김승옥 ‘무진기행’ 中 ‘터벅터벅’

(1) 밑줄 친 음성 상징어의 어감에 유의하며 (가)와 (나)를 읽어 보자.

(2) 음운 교체를 통한 음성 상징어의 짝을 찾아 짧은 글을 짓고, 소리 내어 읽어 보자.

84쪽 ‘품사’ 관련

내용 성취 기준 (7) 품사 분류를 통해서 개별 단어의 특성을 이해한다.

박완서 ‘자전거 도둑’ 中

“수남이는 청계천 세운상가 뒷길의 전기용품 도매상의 꼬마 점원이다. 수남이란 어엿한 이름이 있는데도 꼬마로 통한다. 열여섯 살이라지만 불은 아직 어린아이처럼 토실하니 붉고, 눈 속이 깨끗하다. 숙성한 것은 목소리뿐이다. 제법 굵고 부드러운 저음이다. 그 목소리가 전화선을 타면 점잖고 떨떠름한 늙은이 목소리로 들린다.”

(1) 여러 대상에 두루 쓰이는 명사와 특정한 하나의 대상에만 쓰이는 명사를 찾아보자.

(2) 반드시 그 앞에 꾸미는 말이 있어야 하는 명사를 찾아보자.

129쪽 ‘문장의 길이와 짜임에 따른 표현 효과’ 관련

내용 성취 기준 (11) 문장의 짜임을 탐구하여 이해하고 정확한 문장을 사용한다.

(가) 오영수 ‘갯마을’ 中

(나) 김용준 ‘노시산방기’ 中

(1) (가)와 (나)에 주로 쓰인 문장의 길이와 짜임을 파악해 보자.

(2) (1)을 바탕으로 문장의 길이와 짜임에 따른 표현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131쪽 ‘높임 표현’ 관련

내용 성취 기준 (12) 의미 구성에 기여하는 문법 요소의 개념과 표현 효과를 탐구한다.

이태준 ‘돌다리’ 中

▲ 다음 글에서 주체 높임, 객체 높임에 의한 표현을 찾아보자.

151쪽 ‘사회·문화적 맥락’ 관련

내용 성취 기준 (13)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국어 생활을 하도록 한다.

(가) 이육사, ‘절정’

(나) 작품에 대한 설명

(1) (나)의 내용을 참고하여 (가)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정리해 보자.

(2) (나)를 참고하여 다음 시구의 의미를 해석해 보자.

-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문학과와 통합교육 가능성을 명징하게 밝히고 있는 내용 성취 기준은 ‘(12) 의미 구성에 기여하는 문법 요소의 개념과 표현 효과를 탐구한다.’¹⁴⁾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교과서에는 내용 성취 기준 (5), (7), (11), (12), (13) 등에 도달하기 위해 고전과 현대, 운문과 산문을 넘나드는 다양한 문학 작품들을 활용하여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단어의 형태나 단순한 의미 제공을 어휘 학습으로 생각하며, 단어의 의미를 인지적인 것만으로 한정하는 경향이 강했던 것에서 벗어나, 어휘교육의 내용 구성에 화용적·절차적 지식 등을 포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다만, 언어적 민감성과 말맛을 느끼게 하는 활동이나 문화 능력을 고양하는 활동, 어휘의 문법 지식을 통해 상상력을 세련시킬 수 있는 활동, 어휘를 감상 차원까지 승화시켜 학습자의 내면화를 도모할 수 있는 활동 등은 여전히 찾아보기 어렵다.

3. 어휘교육의 방안 연구 현황

그동안 이루어졌던 어휘교육의 문제는 ‘교육과정 차원’에서는 어휘교육의 비체계성과 학습자 수준 고려의 미흡, ‘교과서 차원’에서는 말맛과 정서적 어휘 고려의 미흡이라 할 수 있다.¹⁵⁾ 이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며 대안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들을 중심으로 어휘교육의 방안 연구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어휘교육의 효과적인 교육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이다.

김소영·이병운(2013)은 어휘교육의 비체계성과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부실한 어휘교육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고등학교 국어과 어휘교

14) 이 내용 성취 기준의 해설은 다음과 같다. “문장의 성분과 짜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요 문법 요소가 문장이나 글 전체에 미치는 표현의 의미 효과를 탐구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종결 표현, 피동·사동 표현, 높임 표현, 시간 표현, 부정 표현, 인용 표현 등 주요 문법 요소들이 사용되는 양상을 이해하고 특히 독서와 관련지어 그것들이 문장과 글 전체에 미치는 표현의 효과를 탐구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사문, 광고문, 시, 소설 등 실제 국어 자료를 통하여 학습하고 활용하도록 한다.(밑줄-연구자)”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별책5]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국어』, 교육과학기술부, 2010, p.129.

15) 어휘교육의 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한 주목할 만한 논의로는 이충우(2005), 박재현(2006), 전은주(2012) 등이 있다.

육 내용의 구성요소 비교표를 제시한다.¹⁶⁾ 여기에서는 어휘교육에 필요한 내용이 지식의 성격에 따라 서술적·절차적·조건적 지식으로 나뉘고, 선정된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세 범주의 조화가 도모된다. 이때 조건적 지식을 반성적·규범적 지식과 문화적·전통적 지식으로 나누어 어휘교육이 문법 영역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어휘교육의 통합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런데 초·중등 어휘교육 내용과 변별이 쉽지 않고, 선정된 구성요소에 알맞은 활동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적 실현태가 명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다.

전점이(2007)은 기존의 어휘교육이 개별 어휘에 초점을 맞춘 언어학적 접근으로 어휘의 결합이 갖는 생명력과 말맛, 정서적 어휘를 소홀히 다룬 문제를 지적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어휘 결합이 지닌 시어의 말맛 느끼기 활동과 정서적 어휘의 낱말발 넓히기 활동을 제시한다.¹⁷⁾ 이와 같은 활동은 학습자가 일상어에 기댄 문학의 언어가 일상어의 정확성, 적절성뿐만 아니라, 환언 불가능한 고유성과 예술성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고,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표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김정우, 2011: 190). 그러나 어휘의 정서적 측면에만 강조점을 두어 오히려 인지적 관점의 정확한 언어 사용 능력이 도외시되고 있다는 점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김정우(2011)은 전점이(2007)과 기본적인 입장은 같지만, 문학교육에서 어휘교육의 내용을 ‘고유어의 보존과 활성화’, ‘공동체의 경험과 정서 공유’, ‘맥락을 고려한 창의적 어휘 사용’의 세 측면으로 제시한다. 특히 그는 ‘민족어 사전’¹⁸⁾의 형성을 궁극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고유어를 통해 표현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고, 의도하는 바에 가장 적합한 단

16) 어휘교육 내용의 구성요소 비교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소영·이병운(2013: 390) 참고.

17) 전점이(2007)은 ‘어휘 결합이 지닌 시어의 말맛 느끼기’를 위해 기형도의 ‘엄마 걱정’을 활용한 활동을 제시하고 있고, ‘정서적 어휘의 낱말발 넓히기’를 위해 김용택 『선운사 동백꽃』을 활용한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점이(2007: 340-344) 참고.

18) 김정우(2011)은 임지룡(1997)을 인용하여 어휘교육을 통해 학습자의 머릿속에 형성되는 사전이 ‘언어학적 사전’ 또는 ‘일반 지식의 백과사전’임을 밝힌 뒤, 문학교육에서의 어휘교육은 두 사전 사이에 있으면서 개별 언어의 특수성을 강하게 나타내는 ‘민족어 사전’으로서의 성격을 띤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민족어 사전’은 학습자의 머릿속에 구성되는 가상의 사전으로, 구체적이고 물리적으로 편찬한 사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정우(2011: 191-193) 참고.

어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고유어만이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나, 말 자체가 환기하는 느낌, 그리고 각 단어의 자음과 모음이 모여 빚어내는 울림 등은 대체하기 어렵다는 그의 주장에 공감한다. 어휘교육의 방향이 공동체의 경험과 정서 공유, 맥락을 고려한 창의적 어휘 사용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주장 또한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늘날 학습자들이 어휘력 부족으로 국어능력 부진을 겪게 되는 까닭은 고유어에 대한 지식 부족이 아니라, 90%가 한자어로 이루어진 학문어, 개념어, 전문어 영역의 어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보인다.¹⁹⁾

한편 구분관(2011-7)은 어휘교육의 방향을 논의하면서, 표현과 이해 교육에의 기여, 의식 고양에의 기여, 문화 능력 함양에의 기여, 국어적 사고력 신장에의 기여라는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식’, ‘기능’뿐만 아니라, ‘태도’와 ‘어휘에 대한 탐구’도 교육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 내용의 재료로 삼을 것들만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활동의 실재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 때문에 ‘태도’ 관련 요소가 명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등은 한계로 남는다.

어휘교육의 방안을 연구한 현황을 정리해보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어휘교육의 개선점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 어휘교육의 위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위계화는 학습자의 수준 및 발달에 따른 어휘교육 내용의 위계화를 말한다. 둘째, 어휘의 인지적·정서적 측면 모두를 고려한 통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사실적·개념적 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태도를 포함한 정적 영역까지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함을 말한다. 셋째, 문화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어휘교육의 내용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고유어뿐만 아니라, 우리말로 표기된 한자어까지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어휘의 사·공간적, 사회·문화적 맥락 차원에서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함을 말한다. 넷째, 어휘교육을 통해 상상력의 세련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어휘의 다양하고 역동적인 의미를 내면화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이 구성

19) 민현식(2011: 232)는 요즘 학습자들은 한자어를 한글표기로만 배워 그 어원을 몰라 국어 어휘 학습이 암호 학습으로 전락하고 독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한다. 최근 한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다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논의의 전개상 넘어가도록 한다.

되어야 함을 말한다. 다음 장에서는 앞서 살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과적인 어휘교육을 모색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 내용의 구성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²⁰⁾

4. 어휘교육의 내용 구성 방향

국어교육에서 어휘교육은 ‘어휘 사용능력, 어휘 지식, 어휘 인식을 확장·세련시킴으로써 정확하고도 풍부한 어휘를 사용하며, 세상사의 지식을 넓히며, 언어문화의 창조에 이바지하는 측면’(임지룡, 2010: 293)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의 어휘교육은 ‘객관주의 언어관’²¹⁾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언어 사용 주체인 인간과 그 활동 배경인 사회·문화적 맥락이 배제된 채 실천되어 온 경향이 있다. 이 장에서는 우리네 삶의 생명성이 녹아 있는 『화사집』 수록 시 텍스트를 활용하여 문법 영역과 문학 영역이 통합된 어휘교육의 내용 구성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²²⁾ 이때 문법과 문학의 통합 형태는 어휘를 중심으로 한 교육 내용의 구성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화사집』은 ‘한글마춤법통일안(1933)’이 제정된 전후의 어휘 양상을 드러내며, 고유어와 방언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²³⁾ 또한 색채 대비나 양성·음성 모음의 적절한 대비로 ‘언어적 민감성’이나 ‘말맛’에

20) 어휘교육의 위계화 문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본고의 논지 전개상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한다.

21) 임지룡(2010)에 따르면 ‘객관주의 언어관’이란 객관성과 엄밀성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언어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세계를 단순히 반영하며 인간을 배제한 채 언어 자체의 자율적 구조 기술을 추구하는 관점이다. 한편 ‘개념주의 언어관’은 객관주의 언어관과 반대되는 관점으로 언어를 인간 마음의 반영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임지룡(2010: 277) 참고.

22) 최병해(2012: 53)은 ‘시와 문법의 통합 취지를 잘 살리려면 문법적 특징이 시의 감상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 문법 지식을 통해 해석이나 감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통합을 해야 시와 문법 교육에서 모두 유용하고 상호 호혜적인 통합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문법 지식을 활용한 시 감상의 단계로 총 3단계(1단계 문법 요소 찾기-2단계 문법 요소의 원리 이해-3단계 문법 요소의 의미·효과 파악)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문학과 문법의 통합을 기반으로 한 어휘교육은 이 3단계에서 더 나아가 학습자의 정서적 내면화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23) 『수대동(水帶洞) 시』, 『바다』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대한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²⁴⁾ 국내외 신화, 전설 등을 담고 있어 ‘세계시민으로서의 교양’을 고양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²⁵⁾ 뿐만 아니라, ‘자아성찰’을 가능하게 하여 인간과 세계에 대해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²⁶⁾ 2011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문법 영역의 내용 체계를 살펴보면, ‘실제’의 하위 항목으로 국어 문화와 관련된 자료(구어 자료, 문어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화사집』에서는 문어-구어의 대결 양상²⁷⁾이 압축적으로 재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도 어휘교육의 대상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문법 영역이 ‘텍스트의 본질을 알고, 텍스트를 이해하고 탐구하며, 텍스트의 실재를 통해 태도를 함양하고 문화를 향유(김규훈, 2011: 50)’하게 하는 텍스트 의미 구성의 전제임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문법 지식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정서(개인적 정서 차원)와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어휘교육의 내용 구성(세계 시민으로서의 문화적 소양 습득 차원)을 제안하고자 한다.²⁸⁾

4.1. 개인적 정서 차원

개인적 정서 차원에서 어휘교육은 ‘언어적 민감성’을 기르고 ‘말맛’을 느끼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맥락을 고려한 창의적 어휘 활동과 자아성찰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언어적 민감성’과 ‘말맛’을 느끼게 하는 교수·학습 활동은 ‘표준어와 방언의 예를 대비’하거나 ‘색채어와 음운 교체를 통해

24) 「입맞춤」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25) 「화사(花蛇)」, 「문둥이」, 「도화도화(桃花桃花)」, 「웅계(雄鷄) 2」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26) 「자화상」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27) 윤재웅(2013)은 『화사집』이 문어(文語)가 한문(漢文)에서 한자(漢字)를 거쳐 한글로 정착되어 가는 과정을 다채롭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개화기 이후 우리의 문체 변혁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례로 기억할 만하다고 언급한다. 또한 『화사집』은 ‘한문이라는 문어에 대한 조선어라는 구어로의 전환’을 주창한 『독립신문』 창간호(1896.4.7)의 ‘조선 국문’의 선인 이래 외교문서나 신문기사나 근대문학을 비롯한 각종 인쇄매체 등에서 벌어진 한 세대 동안의 ‘문어-구어’의 대결 양상이 한 젊은 시인의 의식 속에 압축적으로 재현되고 있다고 언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윤재웅(2013: 355-356) 참고.

28) 이 두 가지 활동은 2011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학교육 내용 체계의 내용요소를 참고한 것으로 어휘 능력의 신장을 위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논의의 편의상 선조적으로 제시함을 밝힌다.

야기되는 표현 효과, ‘고유어의 활용’ 등을 통해 구현할 수 있다. 「입맞춤」과 「수대동 시」, 「벽」, 「바다」 등은 이러한 활동을 하기에 적절한 텍스트라 할 수 있다.

가시내두 가시내두 가시내두 가시내두

콩밭 속으로만 자꾸 달아나고

올타리는 마구 자빠트려 놓고

오라고 오라고 오라고만 그러면

사랑 사랑의 석류꽃 낭기 낭기

하누바람이랑 별이 모다 웃습네요

푹푹한 산노루 떼 언덕따다 한 마리씩

개구리는 개구리와 머구리는 머구리와

굽이 강물은 서천(西天)으로 흘러나려……

땅에 긴긴 입맞춤은 오오 몸서리친,

썩니풀 질근질근 이빨이 히허영게

짐승스런 웃음은 달더라 달더라 울음같이 달더라.

- 「입맞춤」 전문²⁹⁾

위 시 텍스트를 통해 할 수 있는 어휘교육의 교수·학습 활동 내용 구성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상정할 수 있다. 첫째, 방언과 표준어의 대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서적 울림이다. 1행의 ‘가시내두’에서 ‘가시내’는 ‘계집아이’의 전라, 경상 방언이다. 표준어인 ‘계집아이’를 쓰지 않고 ‘가시내’를 씀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말해보는 활동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이러한 활동 내용을 통해 방언이 개인의 정서에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하나의 의미를 갖는 다양한 방언의 쓰임이다. ‘머구리’는 ‘개구리’의 방언이다. ‘개구리’를 ‘개구리’와 ‘머구리’로 표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이 있는지 말해 보는 활동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이와 같은 활동 내용을 통해 다양한 방언들의 쓰임에서 미세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보조사의 활용을 통한 언어적 민감성의 습득이

29) 본고에서 제시하는 내용의 바탕이 되는 텍스트는 은행나무분(2015)를 따른다.

다. ‘가시내두’는 ‘계집아이’의 방언인 ‘가시내’와 ‘놀라움이나 감탄·실망 따위의 감정을 강조하거나 예외성·의외성을 강조하는 데 쓰이는 보조사’ ‘두(도)’의 결합형이다. ‘도’가 아니라 ‘두’를 사용한 이유를 말해 보게 하는 활동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습자들은 우리말의 문법적 특성이 어떻게 인간 정서에 울림을 주게 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cf. 4행 ‘오라고 오라고 오라고만’). 이 외에도 『수대동 시』의 ‘사뭇 슷스러워지는³⁰⁾ 생각’, 『벽』의 ‘벽차고 나가 목메어³¹⁾ 울리라!’, 『바다』의 ‘아 스스로히³²⁾ 푸르른 정열의 넘쳐’ 등을 통해 언어적 민감성과 말맛을 느끼는 활동 내용을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다.

언어적 민감성과 말맛을 체득한 학습자는 자신의 어휘 사용을 통해 자유자재로 세계와 상호교섭하는 활동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언어사용 상황에서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는 활동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맥락을 고려한 어휘 사용은 다양한 상황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이를 통해 세계와 나의 관계를 되돌아보게 하는 성찰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은 『자화상』 등을 통해 구성할 수 있다. 『자화상』의 한 구절을 활용하여 맥락을 고려한 어휘 사용을 유도할 수도 있고, 작품을 모방하여 학습자 스스로의 ‘자화상’을 완성하게 하여 자아성찰에 이르게 할 수 있다.

4.2. 세계 시민으로서의 문화적 소양 습득 차원

어휘교육은 단순히 개인의 정서 차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을 두루 아우르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문화 발전을 위한 태도 형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어휘교육에서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문화적 소양 습득 역시 동반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전통 문화를 담고 있는 어휘와 외국의 문화를 담고 있는 어휘에 대한 문화적 관점의 비교 교육도

30) ‘스스렵다’의 활용형. 슷스렵다는 ‘순진하고 어수룩한 듯하다’라는 뜻이다.

31) ‘기쁨이나 설움 등의 감정이 북받쳐 그 기운이 목에 영긴다’는 뜻의 ‘목메다’가 활용된 형태로 볼 수도 있고, ‘어떤 일이나 사람에게 전적으로 몰두한다’는 뜻의 ‘목메다’가 활용된 형태로 볼 수도 있다.

32) ‘스스렵다(수줍고 부끄러운 느낌이 있다)’의 활용형으로 볼 수도 있고, ‘스스로’로 볼 수도 있다.

필요하다. 이는 「화사」, 「수대동 시」, 「웅계 2」 등을 통해 구현할 수 있다.

사향(麝香) 박하(薄荷)의 뒤안길이다.

아름다운 배암……

을마나 크다란 슬픔으로 태여났기에, 저리도 징그러운 뭉뚱아리나

꽃다님 같다.

너의 할아버지가 이브를 꼬여내든 달변(達辯)의 혀바닥이

소리 잃은 채 넝쿨그리는 붉은 아가리로

푸른 하늘이다.……물어뜯어라. 원통히 물어뜯어,

달아나거라. 저놈의 대가리!

돌팔매를 쏘면서, 쏘면서, 사향 방축길 저놈의 뒤를 따르는 것은

우리 할아버지의 안해가 이브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석유 먹은 듯……석유 먹은 듯……가쁜 숨결이야

바늘에 꼬여 두틀까 부다. 꽃다님보단도 아름다운 빛……

크레오파트라의 피 먹은 양 붉게 타고르는

고운 입설이다.……스며라! 배암.

우리 순네는 스물 난 색시, 고양이같이 고운 입설.……스며라! 배암.

- 「화사(花蛇)」 전문

위 시 텍스트를 통해 할 수 있는 어휘교육의 교수·학습 활동 내용 구성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상정할 수 있다. 첫째, 우리 전통 문화를 담고 있는 어휘에 대한 이해와 표현 활동이다. ‘꽃다님’은 ‘고운 색과 무늬가 있는 천으로 만든 일종의 끈으로, 남자들이 한복을 입을 때 바지를 입을 후 발목을 졸라매기 위해 사용하는 색대님’을 지칭하는 말이다. ‘꽃다님’의 원관념이 무엇인지 말해보고, 원관념을 ‘꽃다님’으로 표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말해 보는 활동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자연스럽게 은유적 표현을 이해하고 고유어 또는 한자어를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의도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외국의 문화를 담고 있는 어휘에 대한 이해와 표현 활동이

다. 5행과 10행에 등장하는 ‘이브’는 ‘하와’의 영어 이름이다. ‘하와’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뽑아 만든 최초의 여자이자,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고 남편 아담과 함께 에덴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존재로 묘사된다. 이 점에 유념하여 5행의 ‘이브’와 10행의 ‘이브’가 상징하는 바를 말해 보게 하는 활동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13행에 등장하는 ‘크레오파트라’는 지성과 미모를 겸비했다고 여겨지는 이집트의 여왕인 클레오파트라이다. 클레오파트라는 태양신 ‘라’의 딸처럼 행세하여 못사람의 사랑을 받았다. 카이사르와 결혼했다가 후에 안토니우스와 결혼하는데, 안토니우스가 죽자 포로 신분이 된 그녀는 태양신 ‘라’의 사자(使者)인 독사를 풀어 자신의 유방을 물게 해 죽음을 맞았다고 전해진다. 이 단어가 주는 느낌과 이 시어가 작품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말해 보는 활동을 구성할 수 있다. 학습자는 외국의 문화를 담고 있는 어휘에 대한 이해와 표현 활동을 통해 세계 시민으로서의 교양을 겸비하고 인간 세계의 다양한 언어적 코드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도화도화』의 ‘오피이리아(오피리아)’, 『수대동 시』의 ‘사알·보오드레-르(보들레르)’, 『웅계 2』의 ‘막다아레에나(막달라 마리아)’, ‘카인’ 등을 통해 문화적 관점에 입각한 다양한 활동 내용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5. 마치며

지금까지 국어교육에서 어휘교육의 문제를 살펴본 뒤 문법 영역과 문학 영역의 교육 내용 통합을 통해 그에 대한 대안과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미당 서정주의 『화사집』에 수록된 시 텍스트를 활용하여 어휘교육의 내용 구성을 제시해 보았다. 본고에서는 『자화상』을 제외하곤 학교 교육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화사집』의 가치를 재조명³³⁾하고, 어휘교육의 구체적 실현태를 교육 내용 구성을 통해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어휘교육의 토대가 되는 위계적 체계를 마련하지

33) 2011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문학’ 교과서 9종의 전시본을 살펴본 결과,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비상교과서, 상문연구사’의 4종에서 서정주의 작품을 다루고 있었다. 천재교과서에서는 「전우의 노래」(『귀족도』), 천재교육과 비상교과서에서는 「신선 재꾼이」(『질마재 신화』), 상문연구사에서는 「자화상」(『화사집』)을 실고 있다.

못한 점은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시인은 미묘한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문법적 특성에 민감하며, 미묘한 정서를 더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해 문법 요소에 대해 보다 깊은 고민을 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고민의 결과는 시 텍스트에서 조사나 보조사, 그리고 다양한 종결 어미, 선어말 어미 등의 쓰임을 통해 잘 나타난다. 그리고 부사의 활용, 보조 용언 등을 통해서도 드러나며, 음운의 사용, 방언의 사용, 문장 구조의 사용 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는 비문이 나타나는 시적 허용 역시 정확한 문장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 어휘가 갖는 보다 큰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비유나 상징 등의 함축적 용법보다 기본적인 언어의 특성이며, 여기에 작용하는 문법적 원리는 일상 언어에 작용하는 문법적 원리와 큰 차이가 없다. 이러한 문법적 요소들은 시에서 특별한 의미를 강조하거나, 시적 화자의 심리 혹은 의도를 잘 드러내거나, 시적 화자의 어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 나타난 문법적 원리를 파악하면, 일상 언어의 문법적 원리를 시인이 어떻게 사용하여 그 의도를 실현해내고 있는지 알 수 있다(최병해, 2012: 53-54).

국어교육에서 어휘교육은 인지적 요소와 정의적 요소를 모두 아우르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가운데 ‘지식’과 ‘기능’에만 치우치지 말고, ‘태도’ 영역까지 아우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문법 영역과 문학 영역을 다차원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통합교육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5]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국어』, 교육과학기술부, 2010.
-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2001.
- 김대용 외, 『고등학교 문학(전시본)』, 상문연구소, 2014.
- 김우창 외, 『미당 연구』, 민음사, 1994.
- 김윤식 외, 『고등학교 문학(전시본)』, 천재교육, 2014.
- 서정주, 『화사집』, 한국현대시 원본전권⑥, 문학사상사, 1941.
- , 『화사집』, 도서출판 전원, 1991.
- , 『미당 서정주 전집 1』, 은행나무, 2015.
- 오봉옥, 『오봉옥의 서정주 다시읽기』, 박이정, 2003.
- 우한용 외, 『고등학교 문학(전시본)』, 비상교과서, 2014.
- 윤여탁 외,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전시본)』, 미래엔, 2014.
- 윤재응, 『미당 서정주』, 태학사, 1998.
- 이남호, 『서정주의 『화사집』을 읽는다』, 도서출판 열림원, 2003.
- 이삼형 외, 『국어교육학과 사고』, 도서출판 역락, 2007.
- 정재찬 외, 『고등학교 문학(전시본)』, 천재교과서, 2014.
- 조정래 외, 『고등학교 문학(전시본)』, 해냄에듀, 2014.
- 차윤경 외, 『융복합교육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14.
- 최미숙 외, 『2011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담은 국어 교육의 이해』, 사회평론, 2012.

2. 논문

- 구분관, 「어휘교육의 이론과 실제」, 『우리말교육현장연구』제5권 제2호,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11, pp.49-92.
- , 「어휘교육의 목표와 의의」, 『국어교육학연구』제40권, 국어교육학회,

- 2011, pp.27-59.
- 김규훈, 「국어과 교육과정의 통합적 내용 구성 방안-2011 교육과정 ‘독서와 문법’ 과목을 대상으로」, 『새국어교육』 제89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11, pp.29-54.
- 김소영·이병운, 「고등학교 국어과 어휘교육 내용의 구성요소 연구」, 『교사교육연구』 제52권 제3호, 부산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2013, pp.379-392.
- 김정우, 「문학교육과 어휘교육」, 『국어교육학연구』 제40권, 국어교육학회, 2011, pp.185-215.
- 김창원, 「국어교육 내용으로서의 ‘실제’ - 국어과 교육과정의 ‘실제’에 대한 메타적 접근」, 『새국어교육』 제98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14, pp.7-34.
- 박재현, 「국어교육 : 어휘교육 내용 체계화를 위한 어휘어미의 가치 교육 연구」, 『새국어교육』 제74집, 한국국어교육학회, 2006, pp.5-24.
- 손영애, 「국어과 어휘 지도의 내용 및 방법」, 『국어교육』 제103호, 한국국어교육연구회, 2000, pp.53-78.
- 신명선, 「어휘교육의 목표로서의 어휘 능력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 제113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04, pp.263-296.
- , 「국어과 어휘교육 내용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제40권, 국어교육학회, 2011, pp.61-101.
- 연은순, 「서정주 시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제8권,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1, pp.61-84.
- 윤재웅, 「조지훈 시세계-미당 시와 관련하여」, 『한국문학연구』 제18권, 1996, pp.99-119.
- , 「『화사집』 자세히 읽기 · 1」, 『한국문학연구』 제22권, 2000, pp.189-203.
- , 「서정주 『화사집』의 문체 혼종 양상에 대하여」, 『한국문학연구』 제44권, 2013, pp.355-385.
- 이관규, 「문법 교육과 어휘교육」, 『국어교육학연구』 제40권, 국어교육학회, 2011, pp.127-158.
- 이충우, 「국어 어휘교육의 개선 방안」, 『국어교육학연구』 제24권, 국어교육학회, 2005, pp.385-407.
- 임미성, 「통합적 국어교육을 위한 교과서 구성 방안」, 『한국초등국어교육』 제

- 21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2002, pp.1-38.
- 임유중·이필영, 『부정 표현과 호응하는 부사의 사용 양상과 언어 발달』, 『한국어 의미학』제15권, 한국어의미학회, 2004, pp.227-248.
- , 『한국 초·중·고등학생의 발화에 나타난 연결 표현의 발달 단계』, 『텍스트언어학』제17권,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04, pp.173-200.
- 임지룡, 『21세기 국어 어휘 의미 연구의 방향』, 『한국어 의미학』제1권, 한국어의미학회, 1997, pp.5-28.
- , 『어휘력 평가의 기본 개념』, 『국어교육연구』제30권 제1호, 국어교육학회, 1998, pp.1-41.
- , 『국어 어휘교육의 과제와 방향』, 『한국어 의미학』제33권, 한국어의미학회, 2010, pp.259-296.
- 장경희·전은진, 『중·고등학생의 어휘 다양도 연구』, 『한국어 의미학』제27호, 한국어의미학회, 2008, pp.225-242.
- 전은주, 『중학교 어휘교육의 위상과 개선 방안』, 『새국어교육』제93권, 한국국어교육학회, 2012, pp.181-213.
- 전점이, 『문학 작품을 활용한 어휘교육』, 『새국어교육』제77권, 한국국어교육학회, 2007, pp.325-347.
- 전한성, 『경험 서사 창작 교육 연구 : 자서전 서사 쓰기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국어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 주세형, 『국어와 어휘교육의 발전 방향』, 『독서연구』제14권, 한국독서학회, 2005, pp.373-399.
- 최병해, 『문법 지식을 활용한 시 감상 방법 연구-문학과 문법의 통합과 관련하여』, 『한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회』, 한국어교육학회, 2012, pp.49-73.
- , 『문법 지식을 활용한 시 감상 방법 연구』, 『국어교육연구』, 국어교육학회, 2013, pp.441-480.

3. 기타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http://ncic.re.kr/>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민현식, 『2011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시안 개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0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http://www.kice.re.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과서 검정, <http://tbh.kice.re.kr/servlet/tbh?cmd=main&Atop=3&Btop=2&date>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국어교육에서 어휘교육의 문제와 연구 현황을 살펴본 뒤 올바른 어휘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그간 어휘교육은 국어교육의 문법 영역에서 주로 인지적 차원으로만 다루어져 왔다. 본고에서는 어휘교육이 정의적 차원에서도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문학 텍스트를 바탕으로 문법과 문학이 통합되는 방향의 어휘교육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미당 서정주의 『화사집』에 수록된 작품들을 예로 제시하였다. 문법 요소는 시에서 특별한 의미를 강조하거나, 시적 화자의 심리 혹은 의도를 드러낼 때, 그리고 시적 화자의 어조를 형성할 때 영향을 미친다. 시에 나타난 문법적 원리를 파악하면 일상 언어의 문법적 원리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고, 저자의 의도나 감정 또한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된다. 이 연구는 「자화상」을 제외하고 학교 교육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화사집』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어휘교육의 구체적 실태를 교육 내용 구성을 통해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어휘, 어휘교육, 문법, 문학, 통합, 인지, 정서

【Abstracts】

The problems of vocabulary education in the field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Seeking direction

– focused on Hwa-sa-Jip written by Midang Seo Jeongju –

Noh Hong-ju & Jeon Han-sung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find ways of vocabulary education relating to the recent studies of vocabulary education in the field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the problems that vocabulary education has. Until now, vocabulary education has been discussed in the area of grammar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especially in the aspect of cognition. This study put emphasis on the affective aspect of it which is helpful for learners to understand various meanings of vocabulary, and finally suggest ways to integrate grammar and literature based on the texts of literature. The texts from Hwa-sa-Jip written by Midang Seo Jeongju were used as examples for this study. Usually, grammatical elements in poems are used to emphasize a special meaning, or to express the mental state or purpose of a poetic narrator, or to make an effect on the tone of the poetic narrator. Therefore, grammatical principles of everyday language can be easily understood through the understanding of grammatical principles in the poem, and the intention and emotion of the writer can be shared. This study valued Hwa-sa-Jip in a refreshing way as an text in school

education, and had significance for suggesting concrete ways of learning activities of vocabulary education.

Key words: Vocabulary, Vocabulary education, Grammar, Literature, Integration, Recognition, Emotion

이 논문은 2015년 7월 6일에 투고되었으며, 2015년 7월 26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5년 8월 12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